

# 중국경내 어윙키족 언어에 대한 한글 서사법 연구\*

全廣鎮\*\*

---

## ◁ 목 차 ▷

---

- I. 서론
  - II. 어윙키어 개요 및 특징
  - III. 어윙키어 음운체계 검토
  - IV. 어윙키어 한글 서사 방안
  - V. 어윙키어 한글 서사 예시
  - VI. 맺음말
- 

## I. 서론

중국경내 55개 소수민족 가운데 고유의 문자가 없는 무문 민족의 하나인 어윙키족 언어를 한글로 서사하는 방안에 관한 연구는 이 논문이 최초가 아니다. 일찍이 2008년도에 초안<sup>1)</sup>을 다음과 같이 입안한 바 있다. ① 자음 : b[ㅂ] d[ㄷ] g[ㄱ] p[ㅍ] t[ㅌ] k[ㅋ] dʒ[ㅈ] ʃ[ㅅ] x[ㅎ] m[ㅁ] n[ㄴ] ŋ[ㅇ] l/r[ㄹ], ② 단모음 : i[ㅣ] u[ㅜ] ε[ㅓ] ɔ[ㅗ] ə[어] a[ㅏ], ③ 이중모음 : io[ㅛ] ua[ㅑ].

이것은 胡增益·朝克(1986)의 음운 체계에 대하여 음소별로 한글 자모를 단순히 대응 시켰을 뿐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음운을 簡化하거나 補正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었다. 다소 큰 문제점만 꼽아 보자면, ① 자음으로 15종 음소와 3

---

\* 이 논문은 성균관대학교의 2011학년도 삼성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성균관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1) 2008년도 논문은 《중국경내 소수민족 언어에 대한 한글 서사 방안 탐구》라는 제목에서 “소수민족 언어 전체를 대상으로 한글 서사 방안이 강구될 필요성이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점검해보고, 나아가 한글 서사 방안이 적용 가능한 언어를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그 방안을 강구해보는 연구”(전광진 2008, 424)라는 논지에서 작성된 것이었기 때문에 초보적인 탐색에 불과할 수밖에 없었다.

중 변이음에 대하여 음소론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한 점. ② 꼬리자음이 분리되지 않고 함께 혼재되어 있어 이를 세분해야 하는 점<sup>2)</sup>, ③ 모음 ɪ, ʊ, o는 각각 대응되는 i, u, ɔ의 변이음일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점. ④ 장모음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모를 부여하기보다는 장음 표시의 보조 기호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충분할 것이지만, 대응되는 단모음이 없는 장모음 두 가지(ee, ee)에 대해서는 변이음일 가능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는 점, 이상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과제에 대하여 심도 있는 재검토를 통하여 더욱 완벽한 어윙키어 한글 서사법을 강구하는 것이 이 논문의 주요 목적이다.

## II. 어윙키어 개요 및 특징

어윙키족은 중국 국경 내외 몽골 및 러시아 시베리아 지역에 걸쳐 널리 분포되어 있는 이른바 ‘跨界(跨境)民族’이다. 중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어윙키족 인구는 30,505명(2000년 현재)으로 내몽고자치구에 26,201명, 흑룡강성에 2,706명이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 러시아에도 2002년 현재 약 35,527명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김주원 등 2008, 69). 어윙키족 자치 행정구역을 “鄂溫克族自治旗”(縣級에 상당)이라고 하며 1958년에 수립되었다. 1732년 청나라 정부가 布特哈지역의 1,600여명의 어윙키족 장병을 선발하여 가족과 함께 呼倫貝爾 초원지대로 이주시켜 그곳에서 변방을 지키도록 하였다. 그들 일부의 후손이 지금의 鄂溫克族自治旗에 거주하는 어윙키인이라고 한다.

어윙키(鄂溫克)는 ‘광활한 삼림지대에 사는 사람들’(住在大山林中的人們) 또는 ‘산맥 남쪽 기슭에 사는 사람들’(住在山南坡的人們)이란 뜻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한다. 이들은 거주지역, 생활 방식 및 문화 차이에 따라 ‘索倫’, ‘通古斯’, ‘雅庫特’ 등 세 부류로 나뉜다. 索倫은 일부는 半農半牧, 일부는 완전 유목 생활을 하고 있으며, 주로 鄂溫克族自治旗, 莫力達瓦達斡爾族自治旗, 阿榮旗, 扎蘭屯市 등 4곳

2) 유음 l과 r, 비음 ɲ은 머리자음인지 아니면 꼬리자음인지에 따라 한글 서사 방안이 매우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는데, 언어조사 단계에서는 이것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에 살고 있는 어윙키인을 말한다. 通古斯는 목축 생활을 하는 사람들로 중국과 러시아 국경지역의 陳巴爾虎旗의 鄂溫克蘇木에 사는 어윙키인을 말한다. 雅庫特는 根河市的 敖魯古雅 鄂溫克民族鄉에서 유목, 수렵, 馴鹿 飼養 생활을 하는 어윙키인을 말한다. 이들 세 부족은 언어와 풍속 습관, 종교는 모두 동일하며 거주 지역이 다르고 생활 문화가 약간 다를 뿐이며, 1958년에 각 부족 대표가 모여 그들 민족을 통칭하여 ‘鄂溫克族’(əwəŋkhi)이라고 이름 하기로 하였다.

어윙키어는 만-通古斯어족 通古斯어지에 속한다. 通古斯어지에 속하는 언어로는 중국의 오로첸어, 러시아의 埃文基어(звэвенкийский язык) 등이 있다. 만주-통구스어족의 기타 언어로는 만주어, 錫伯語, 赫哲語 그리고 옛날의 女真語도 이에 속하였다고 한다. 어윙키족 사람들은 절대다수가 해당 민족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어윙키어는 (1)海拉爾(Hailar), (2)陳巴爾虎(Chenbarhu), (3)額爾古納敖魯古雅(Aolguya), 이상 세 방언으로 구분된다. 그 가운데 海拉爾 방언 사용 인구가 가장 많아서 약 80% 이상이 이 방언을 사용한다. 인접한 민족의 영향으로 몽골어, 達斡爾語를 사용하기도 하고, 중국어를 구사하는 어윙키인도 상당수 있다. 鄂溫克自治旗에 있는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에서는 몽고어 또는 중국어로 교육을 하고 있다. “어윙키족은 고유의 문자가 없다. 자치정부의 공문이나 우편물 등은 일반적으로 몽골문자나 한자를 사용하고 있다<sup>3)</sup>”고 한다.

언어 유형학적으로 한국어와 동일한 교착형 언어에 속하는 어윙키어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胡增益·朝克 1986, 2). ①모음이 장단음으로 나뉜다는 점, ②모음조화가 비교적 엄격하게 지켜진다는 점, ③자음 접변 현상이 많다는 점, ④어법 의미를 나타내는 부가 성분이 풍부하다는 점, ⑤격의 종류가 많다는 점, ⑥소유격을 나타내는 부가 성분의 널리 쓰이고 있다는 점, ⑦동사가 인칭과 형식에 따라 달

3) “鄂溫克族沒有文字。自治地方的公文、信件一般使用蒙古文或漢文。”(胡增益·朝克 1986, 2). 러시아 국경내 어윙키족을 중국인 학자들은 “埃文基”라고 한다. 예전에는 “通古斯”라 하였다. 어윙키족의 거주지역은 700만 평방키로미터로 시베리아 전체의 약 70%에 상당하는 데, “그들은 고유의 언어와 문자를 가지고 있다”는 기록(俄羅斯境內的埃文基有自己的語言和文字)이 汪立珍(2006, 48)에 있다. 이것은 어윙키족의 언어 문자가 아니라 神話를 전문 연구한 저작이기에 신빙성이 낮다. 러시아 국경 내의 어윙키족 언어를 조사한 바 있는 국내학자들(김주원 등 2008)의 보고서에는 그러한 문자를 사용하고 있다는 기록이 없다.

라진다는 점, ⑧어순이 “주어+목적어+술어(SOV)”, ⑨수식어가 피수식어의 앞에 놓인다는 점, ⑩주어와 술어가 인칭 부가 성분과 호응되는 예가 많다는 점, ⑪목적어와 관련 어휘가 많이 발달되어 있다는 점, ⑫방언간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다는 점 등이다. ①에서 ③은 음운, ④에서 ⑩은 어법, 그 밖의 것은 어휘 등에 나타나는 특징을 개괄한 것이다. 이러한 특징 가운데 한글 서사에 걸림돌이 될 만한 것은 하나도 없다. 성조어가 아니라는 점, 한국어와 동일한 교착어라는 점은 한글 서사에 유리한 특질로 작용한다.

### Ⅲ. 어윙키어의 음운 체계 검토

#### 1. 음운 체계

중국경내 내몽고자치구와 흑룡강성에 주로 분포되어 있는 어윙키족의 언어에 대한 조사 보고는 胡增益·朝克(1986)가 유일무이한 것이다.<sup>4)</sup> 이 조사 보고는 어윙키어 가운데 사용인구가 가장 많은 海拉爾(Hailar) 방언에 근거한 것이다. 이에 그 음운체계를 인용해 보자면 <표1>, <표2>와 같다.

胡增益·朝克(1986)에 보고된 어윙키어 음운 체계는 언어 조사 결과를 보고한 것이다. 즉 어윙키어를 書寫(writing)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음소 전사(phonetic transcription)나 정밀 전사(narrow transcription)의 성격을 지니는 것이다. 자음 부문에 변이음이 괄호 속에 표기 되어 있는 것을 통하여 그 일단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모음 부문에는 변이음이라고 명시된 것은 없지만 음소로 보기 어려운 것이 있는 것 같다. 특히 자음은 머리자음(initial)과 꼬리자음(ending)으로 세분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음운 체계에 있는 음소 하나하나에 대하여 한글 자모를 대응시키는 방식으로 서사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4) 이 논문에서 ‘(어윙키어) 언어 조사 보고’라 함은 胡增益·朝克(1986)를 말한다. 어윙키어에 관한 기술은 모두 이 조사 보고에서 인용한 것이다. 몽골, 러시아 경내의 어윙키어를 국내학자들이 현지 언어 조사를 하였다(2004년 4월 19일-24일)는 보고는 있으나(김주원 등 2008, 229) 어윙키어의 음운 체계 등에 대해서는 발표된 바가 없다.

의미가 없다. 어원기어에 대한 간단하고도 편리한 書寫法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음운 체계를 簡化하는 작업을 선행하여야 할 것이다. 즉, 음소와 변이음, 특히 자음에서는 머리자음과 꼬리자음을 구분해야 서사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표1〉 어원기어의 자음(15)

	양순음	순치음	치조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파열음	b		d		g
	p		t		(k)
파찰음				ɕ	
				(tʃ)	
마찰음			(s) f		x
유음			l		
			r		
비음	m		n		ŋ
반자음				j	w

〈표2〉 어원기어의 단모음(9)

	전설모음		후설모음	
	평순	원순	평순	원순
고 모 음	i	ɪ	ɔ	u
중고모음				o
중저모음	ɛ		ə	ɔ
저 모 음			a	

※ 장모음(11) ii ɪɪ ɛɛ əə oo uu aa ɔɔ ʊʊ ee EE

복모음(2) io ua

## 2. 음운 간화

한 언어를 음성 자모나 문자로 서사하기 위해서는 음성 전사를 음소 전사(phonemic transcription)로, 정밀 전사를 간략 전사(broad transcription) 체계로 簡化하는 절차가 따라야 한다. 라틴 자모로 서사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언어 조사 결과 도출된 모음 i와 ɪ의 대립을 국제음성기호(IPA)로 표기할 수는 있지만 라틴 자모로 서사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i와 ɪ를 하나의 음소로 볼수 있을지에 대한 면밀한 간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어윙키어 언어 조사 결과로 도출된 음운 체계를 머리자음, 꼬리자음, 모음 등 세 분야로 나누어 고찰해 보기로 하겠다.

### 1) 자음의 간화

자음의 간화는 언어 조사 보고에 있는 3종 변이음, 꼬리자음의 구분, 장자음의 처리 이상 세 가지 문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① 변이음 문제

(1) 胡增益·朝克(1986: 8)는 x와 k의 출현 위치가 상보적 분포를 보이고 있는 예를 들어, k를 x의 변이음으로 간주하였다. 그렇다면 유성음 b와 d는 무성음 짝인 p와 t가 있는데 비하여 오직 g만이 무성음 짝이 없는 불균형성을 보이고 있다. <어휘 목록 1,079><sup>5)</sup> 가운데 k로 표기한 것이 4개가 있다. 이를테면 ‘입춘’(立春) nəlkiɾən, ‘고함’(喊叫) wakkiɾaran, ‘참새’(雀) ʃikkan, ‘두견’(杜鵑) xəkku. 이러한 낱말에 보이고 있는 k를 변이음으로 보는 것 보다는 하나의 음소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음운 체계의 균형성을 고려하자면 더욱 그러하다.

(2) ʃ와 s, ʃ와 ʃf가 각각 상보적 분포를 형성하고 있다는 근거로 s와 ʃf를 변이음으로 보고 ʃ만 독립 음소로 설정하고 있다(胡增益·朝克 1986: 7-8). 이 두 변

5) 胡增益·朝克(1986)의 어윙키어 조사 결과 보고서에는 어휘 1,079개 목록이 낱말 의미는 중국어로, 어음은 국제음성기호로 기록된 부록이 첨가되어 있다. 이것을 한국어의 의미 항목과 어음에 대한 한글서사를 덧붙여 이 논문의 부록으로 실어 놓았다. 이하 이를 略稱하여 <어휘 목록 1,079>라 한다.

이음을 굳이 음소로 설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sup>6)</sup> s를 음소로 보고 ʃ와 ʒ를 변이음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sup>7)</sup>, 한글 서사 방안을 강구함에 있어서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ʃ를 /s/과 대응 시키면 되기 때문이다.

## ② 꼬리자음의 구분

언어 조사 결과로 보고된 15종 자음은 머리자음과 꼬리자음을 구분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3가지 문제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1) 자음 목록에 열거되어 있는 l과 r은 머리자음이나? 아니면 꼬리 자음이나?가 문제다. l은 머리자음과 꼬리자음 둘 다로 쓰인다. 그러나 r은 어원기어의 고유어에서는 낱말의 첫머리에 쓰이는 예가 없고 차용어에서만 음절의 첫머리에 등장하며 이 경우에는 [r]로 발음한다고 하며 radʒu[raʒʊ]‘라디오’를 예시하고 있다.<sup>8)</sup> 그렇다면 r은 머리 자음 목록에서는 제외시켜도 무방할 것이다. 꼬리자음에는 l과 r이 모두 다 쓰이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한글 서사 방안은 뒤에 다시 검토하기로 한다.

(2) 머리 자음 목록에서 제외할 것이 또 하나 있다. ŋ이 고유어의 음절 첫머리에는 등장하지 않는다고 하면서(참고, 각주 8)), 예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어휘 목록 1,079> 가운데 순수 머리자음으로 쓰인 ŋ은 하나도 없다.<sup>9)</sup> 따라서 이것도 머리자음에서는 제외해도 무방할 것이다.

(3) 앞에서 잠시 언급한 바 있듯이, 胡增益·朝克(1986)의 조사 보고가 지니는 가장 큰 결함은 머리자음과 꼬리자음을 구분하지 아니한 점이다. 그렇게 한 까닭은 長子音 현상에 기인된다. 머리자음과 꼬리자음은 장자음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달려 있다. 먼저 長子音에 대한 설명을 옮겨 보자.

6) 어원기어 한글 서사법을 사용하게 된다면 /s/의 기본 음가는 [ʃ]인데 일정 조건하에서는 [s]또는 [ʒ]로 발음됨을 주지시키면 될 것이다.

7) 중국 정부는 1950 년대에 문자가 없는 소수민족 언어를 로마 자모로 ‘新創文字’를 제정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어원기어 로마 자모 서사법을 강구하는 문제라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8) “在固有詞r, ŋ 不出現在詞首, 但借詞裏 r 可以出現在詞首讀作[r], 如radʒu[raʒʊ](收音機)等.”(胡增益·朝克1986, 8쪽)

9) 장자음의 쓰인 예는 2개 있다. 참조 주22).

“다음절 낱말 내부에 자음이 중첩되는 현상이 있다. 중첩된 후에는 장자음으로 발음된다. 이 책에서는 해당 자음 자모를 겹쳐 쓰는 것으로 나타내기로 한다. 낱말 가운데 자주 보이는 자음으로는 bb, pp, mm, dd, tt, nn, ll, rr, ɕɕ, ʃʃ, j j, gg, xx. 이 있다.”<sup>10)</sup>

어원키어의 15개 자음 가운데 w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중첩 현상, 즉 장자음으로 쓰이는 셈이다. 13종 자음 모두에 대하여 예를 들고 있는데 편의상 3개만 옮겨 보자면 다음과 같다.

예) gɒbbi ‘이름’  
ʃappɔ ‘젓가락’  
amma ‘입’

이것이 음절 구조의 유형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이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낱말 가운데 쓰이고 있는 長子音은 음운변화의 규칙으로 보자면 同化작용으로 발생된 것이다. 따라서 長子音이 낱말의 첫머리에는 등장되지 않는다. 그리고 낱말의 말미에도 출현되지 않는다. 장자음이 비록 하나의 음으로 발음되지만 음절 구조 규칙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그것들은 각기 다른 음절에 속하고 있다.”<sup>11)</sup>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시한 예는 다음과 같다.

예) ax-xi ‘마지’ VC+CV  
mid-da ‘표범’ CVC+CV  
təg-gən ‘수레’ CVC+CVC

이 음절 구조를 그대로 인정한다면 꼬리자음이, 장자음에 의한 꼬리 자음과 순수 꼬리자음, 두 종류로 나누어진다. 즉 VC=CV의 구조에서 C는 전자이고, VC≠CV

10) “在詞中輔音有重疊現象，重疊後讀爲長輔音，本書用重寫輔音符號表示。在詞裏常見的長輔音有：bb, pp, mm, dd, tt, nn, ll, rr, ɕɕ, ʃʃ, jj, gg, xx.”(胡增益·朝克 1986, 8)

11) “詞裏的長輔音，從語音變化規律來看，是由於同化作用而產生的，因此長輔音不出現在詞首，也不出現在詞末。雖然長輔音讀如一個音，但是從音節結構規則角度來看，它們是分屬不同音節的。”(胡增益·朝克1986, 10)

또는 VC+VC의 C는 후자, 즉 순수 꼬리자음이다. 〈어휘 목록 1,079〉 전부를 대상으로 조사해 본 결과, 순수 꼬리자음으로 쓰이는 것은 g, ʃ, x, r(=l)<sup>12)</sup>, m, n, ŋ 이상 7종이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매우 소중한 사실을 도출할 수 있다. 어휘기어의 순수 꼬리자음은 7종뿐이다. VC=CV의 C는 꼬리 자음 문제가 아니라 長子音 문제이며, 이를 어떻게 서사할 것인지는 음성학적 문제가 아니라 음운론적 문제인데, 이에 대해서는 한글 서사 방안을 강구할 때 다시 상세히 검토해 보기로 한다.

이상과 같은 간화를 통하여 도출된 어휘기어의 머리자음(14)와 꼬리자음(7)의 목록은 〈표3〉, 〈표4〉와 같다.

〈표3〉 간략 전사 머리자음 (14개)

	양순음	순치음	치조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파열음	b		d		g
	p		t		k
파찰음				ʈʂ	
마찰음			ʃ		x
유음			l		
비음	m		n		
반자음				j	w

12) 꼬리자음 r과 l을 별개로 볼 수 있을 만한 근거로 '복숭아' (桃子) tɔr, '토끼' (兔子) tɔl 같은 준동음어가 1,079개 어휘 가운데 단 한 쌍이 발견되었다. 하지만 서사의 편의를 고려하자면, 동일하게 서사하더라도 동음어의 혼란이 크게 야기 될 것 같지는 않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상세히 검토할 것이다.

〈표4〉 간략 전사 꼬리자음 (6개)

	양순음	순치음	치조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파열음					g
마찰음			f		x
유 음			r / l		
비 음	m		n		ŋ

## 2) 모음의 간화

胡增益·朝克(1986)은 모음 음소에 대하여 단모음 9개, 장모음 11개, 이중모음 2개 이상 총 22개라는 다소 많고 복잡한 모음 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음성학적으로는 의심할 바 없다. 전반적인 언어 조사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언어 조사 그 자체를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기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언어에 대한 서사 방안을 강구하자면 음운론적 재검토와 簡化 절차가 따라야 할 것이다. 서사 방안을 세우기 위한 경우에는 轉寫가 간략할수록 좋다. 즉 간략 전사(broad transcription) 일수록 서사 방안도 간단하고 편리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모음 음소를 간화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① 단모음 9개 가운데 i 와 ɪ, u와 ʊ가 각각 별개의 음소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각각 하나씩의 준동음어가 열거되어 있다.<sup>13)</sup> 그러나 o와 ɔ에 대하여는 보충 설명이 하나도 없다. o와 ɔ를 하나로 합친다면, i와 ɪ 그리고 u와 ʊ도 하나의 음소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설사 26개 로마 자모로 서사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이것들을 구분할 방도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음의 대칭성을 감안한다면 6개 모음 체계로 간화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sup>14)</sup>

13) “ɪ 與 i, ʊ 與 u 雖然相近, 但在第一, 第二音節, 它們之間的區別是清楚的. 如 ifɪɪɪ (肩胛骨), ifixi (氈子); ɔlda (被子), ulda (肉) 等. 多音節詞第二音節以後, 元音一般弱化, 但是受元音和諧的影響, ɪ 與 i, ʊ 與 u 仍有些區別, 因此是互不相同的四個元音.”(胡增益·朝克1986, 5)

14) 이렇게 할 경우 동음어 현상이 많이 발생된다면 문제가 된다. 그러나 〈어휘 목록 1,079〉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해본 결과 모음 차이에 의한 준동음어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보아 그런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 같다.

i      u  
 ε    ə    ɔ  
 a

② 장모음 가운데 대응 단모음이 있는 것은 해당 모음에 장음 표지(:)를 덧붙이면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다. 다만 대응 단모음이 없는 ee와 EE는 문제가 있다. 이 두 모음은 음절 첫머리에 출현하지 아니하며, 자음 뒤에 출현할 때에는 그 앞의 자음에 대하여 구개음화시킨다<sup>15)</sup>고 한다. 하지만 이것을 굳이 하나의 음소로 보기보다 ε의 변이음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상과 같은 간화를 통하여 다시 설정한 음운 체계는 <표5>와 같다.

<표5> 간략 전사 단모음(6개)

	전설모음		후설모음	
	평순	원순	평순	원순
고 모 음	i			u
중고모음				
중저모음	ε		ə	ɔ
저 모 음			a	

\* 이중모음(2) : io, ua

장 모 음(6) : ii(ɪɪ), ee(ee, EE), əə, uu(ʊʊ), aa, ɔɔ(oo)

15) “ee, EE 沒有相對的短元音，而且都不出現在詞首。它們出現在輔音後面時，輔音鄂化。”(胡增益·朝克1986, 5)

## IV. 어윙키어 한글 서사 방안

### 1. 서사 원칙에 의한 검토

#### 1) 서사 원칙

필자는 2002년 이후 무문 민족의 언어(로바어, 부눈어, 루카이어)에 대한 한글 서사법을 개발하면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원칙을 적용하였다.

“첫째, 대응 한글 자모의 선정은 음성학적 유사성을 최우선으로 한다. 둘째, 현재 사용되고 있는 한글 자모를 최대한 활용한다. 다만 컴퓨터 입력이 가능하다면 ‘옛 한글 자모’도 취할 수 있다. 셋째, 보조 기호의 사용은 최소화한다. 이러한 원칙은 컴퓨터 활용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서사체계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함이다. 넷째, 대상 언어의 음절 구조를 최대한 존중한다.”(전광진 2002; 2008; 2010; 2011)

어윙키어의 한글 서사에도 이 원칙을 그대로 적용시키기로 한다. 어윙키어 한글 서사가 이 원칙에 위배될 여지가 있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미리 검토해 보기로 하겠다.

#### 2) 서사 방안 선행 검토

장모음의 서사가 셋째 원칙에 다소 저촉되는 셈이다. 한글 서사는 음절 단위 모 아쓰기가 원칙이기에 장모음이 있는 음절 뒤에 장음 표지(:)를 덧붙일 수밖에 별다른 방안이 없다. 그러나 이 표지가 컴퓨터로 쉽게 처리될 수 있기에 서사의 불편성이 야기되지는 않을 것이다.

넷째 원칙인 음절 구조의 준수가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기에 이에 대해서는 상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먼저 어윙키어의 음절 구조 유형에 대하여 살펴보기 위하여 胡增益·朝克(1986, 9-10)의 설명을 옮겨 본다.

“어윙키어의 음절은 모두 모음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하나의 단어가 몇 개의 모

음을 지니고 있는지를 보면 몇 개의 음절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모음은 앞과 뒤에 모두 자음이 올 수 있다. 모음 뒤에 자음이 없는 것은 開音節이고, 자음이 있는 것은 閉音節이다. 음절을 종류는 다음 5종이다.

① V	uu	‘화살꼬리’,	u-tə	‘아들’
② VC	əən	‘약’,	əl-da	‘이불’
③ VCC	ajl-fin	‘손님’		
④ CV	moo	‘나무’,	ta-tr-faa	‘배웠다’
⑤ CVC	dʒaan	‘10’,	mur	‘독수리’

이상 어원기어의 5종 음절 구조 가운데, ①번과 ②번은 단어의 첫머리에만 출현된다. ④와 ⑤번의 출현 빈도가 가장 높다. ③번 유형의 출현 빈도는 극히 낮다.”

어원기어 음절 구조의 5종 유형 가운데 한글 서사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은 ③번이다. 이 유형의 “출현 빈도가 극히 낮다”(3型出現的頻率極少)고는 하지만, 이 경우의 CC에 어떤 종류의 꼬리자음이 있는지에 따라 문제가 심각할 수 있겠기에 〈어휘 목록 1,079〉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해본 결과 다행히 하나도 없었다.<sup>16)</sup>

앞에서 잠시 보았듯이 어원기어 한글 서사 방안을 수립함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자음의 音重複(gemination) 현상<sup>17)</sup>에 대한 처리 문제이다.

각주 11번의 내용을 참고 하면서 다음 단어의 예를 바탕으로 이에 대한 한글 서사 방안을 강구해 보기로 한다.

예) ax-xi	‘바지’	VC+CV
mid-da	‘표범’	CVC+CV

16) ‘멧돼지’(野豬) ajdan 같이 j뒤에 자음이 오는 경우는 상당수 있었다. 그러나 그것들은 VCC+VC 구조가 아니라 VC+CVC 구조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17) 필자가 寡聞한 탓으로 “長輔音”이란 용어를 어원기어어 조사 보고서에서 처음 접하였다.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한글 서사법 고안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關鍵이 되었기에 이에 대해서 고민하던 중, 영어 음성학자인 俞萬根 영문학과 명예교수님에게 자문을 통하여 이태리어에서 보이는 音重複(gemination) 현상과 같은 성질의 것임을 알게 되었다. 이로써 장자음 문제의 돌파구를 찾게 된 것에 대하여 유만근 은사님께 심심한 謝意를 이에 표해둔다.

təg-gən      ‘수레’      CVC+CVC

위의 낱말들에 대하여 ①안 [양히]/[민다]/[떡건], ②안 [양:이]/[밀:아]/[떡:연], ③안 [아히]/[미다]/[떠건] 이상 세 가지 서사 방안을 구상해 볼 수 있다. ①번과 ②번 안은 어원키어의 음절 구조를 100% 반영한 것이라는 장점이 있으나 可讀率이 떨어져 읽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특히 ②번은 음성학적으로는 옳은 書寫일 수 있으나, 해당 음절의 모음의 장음 표지인지 아니면 꼬리 자음의 장음 표지인지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③안은 가독률이 높아 읽기 쉽다는 장점은 있으나, 자음의 중첩 현상이 서사 체계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본고에서는 ③안을 채택하기로 한다. 그 이유는 두 가지 이다. 첫째, 언어 조사 보고에서 밝혀진 바 있듯이, 장자음이 국제음성기호로는 중복 표기 되어 있지만, 어차피 하나의 음으로 발음되며(“長輔音讀如一個音”), 막음(approach)/지속(hold)/개방(release)의 세 단계 가운데 ‘지속’이 약간 길 뿐이기에 때문이다. 둘째, 모든 초성 자음이 모음과 연결할 때 약간 길게 발음한다. 즉 지속 단계가 상대적으로 조금 길다는 사실을 주지시키면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아히]/[미다]/[떠건]의 [히], [미], [ㄱ]을 약간 길게 발음한다고 설명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그 자음을 음절 경계를 넘어 중복해서 서사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그리고 [아히]/[미다]/[떠건] 등이 각각 [양히]/[민다]/[떡건] 등과 준동음어(minimal pair) 현상이 생길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야기되지는 않는다.

## 2. 음소별 한글 서사 및 예시

제3장에서 검토한 음운 간화, 본 장에서 검토한 음절구조 및 장자음의 분석을 토대로 어원키어 한글 서사 방안을 강구해 보기로 하겠다. 머리자음, 꼬리자음, 모음으로 나누어 각 음소별 서사를 예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 1) 머리자음의 서사 및 예시

① /b/ [ㅂ]

잘못(錯誤)      bɔrɔ

블오

거울(鏡子)	biləxu	<b>비러후</b>
갚다(還, 還錢)	buuggirən	<b>부:길언</b>
가을(秋)	bəl	<b>블</b>
② /d/ [ㄷ]		
두껍다(厚)	dırama	<b>달아마</b>
날개(翅膀)	dəttulee	<b>더뚜래:</b>
날다(飛)	dəgilirən	<b>더기릴언</b>
나무침상(鋪, 鋪床)	dəlgərən	<b>덜걸언</b>
③ /g/ [ㄱ]		
고모(姑母)	guugu	<b>구:구</b>
겹옷(夾衣)	gagara	<b>가갈아</b>
강철(鋼)	gaan	<b>간:</b>
높다(高)	gōdda	<b>구다</b>
④ /p/ [ㅍ]		
비행기(飛機)	pəjtin	<b>삐이띤</b>
붓(毛筆)	pii	<b>삐:</b>
대포(炮)	poo	<b>뵤:</b>
넘치다(溢)	piltərən	<b>뵤뵤언</b>
⑤ /t/ [ㄷ]		
송아지(牛犢)	təfan	<b>뚜산</b>
빨리빨리(快快)	tuggən	<b>뚜건</b>
빠르다(快)	tuggən	<b>뚜건</b>
비둘기(鴿子)	tuutəgee	<b>뚜:띠개:</b>
⑥ /k/ [ㄱ] <sup>18)</sup>		
입춘(立春)	nəlkirən	<b>널길언</b>
고함(喊叫)	wakkıraran	<b>우아낄알안</b>
참새(雀)	fıkkən	<b>시간</b>
두견(杜鵑)	xəkku	<b>허꾸</b>
⑦ /ɕ/ [ㅈ]		
십(十)	dʒaan	<b>잔:</b>
시다(酸)	dʒiʃun	<b>지순</b>
수달(水獺)	dʒuuxun	<b>주:훈</b>
수리하다(修理)	dʒəxaran	<b>주살안</b>

18) 다음절 단어의 첫음절 머리자음으로 쓰인 예는 전혀 없고, 둘째 음절의 머리자음에 출현하는 예만 있다. <어휘 목록 1,079> 가운데 이것이 전부다.

- ⑧ /ʃ/ [ㅅ]
- |           |           |      |
|-----------|-----------|------|
| 알다(知道)    | ʃaaran    | 살:안  |
| 씻다(洗, 洗手) | ʃixxɪran  | 시힐안  |
| 쓸개(胆, 苦胆) | ʃiildə    | 실:디  |
| 알리다(告訴)   | ʃilbaaran | 실발:안 |
- ⑨ /x/ [ㅎ]
- |          |         |     |
|----------|---------|-----|
| 영화(電影)   | xɪnɔ    | 히노  |
| 연필(鉛筆)   | xaranda | 할안다 |
| 씨면양(種綿羊) | xɔʃ     | 훗   |
| 양(羊)     | xɔnɪn   | 후닌  |
- ⑩ /l/ [ㄹ]
- |        |           |      |
|--------|-----------|------|
| 막다(塞)  | liixxirən | 리:힐언 |
| 노새(驢子) | læɔs      | 릿:   |
| 구덩이(坑) | laxa      | 리하   |
| 걸다(挂)  | lɔxɔrən   | 로홀온  |
- ⑪ /m/ [ㅁ]
- |           |       |    |
|-----------|-------|----|
| 묘(畝)      | muu   | 무: |
| 매우, 아주(很) | mandɪ | 만디 |
| 매(老鷹)     | mur   | 물  |
| 말(馬)      | mɔrɪn | 물인 |
- ⑫ /n/ [ㄴ]
- |        |          |      |
|--------|----------|------|
| 병나다(病) | nənuunən | 너누:년 |
| 백(百)   | namadʒɪ  | 나마지  |
| 짜다(織)  | nəxərən  | 너힐언  |
| 밝다(亮)  | nærin    | 널:인  |
- ⑬ /w/ [우]<sup>19)</sup>
- |          |            |       |
|----------|------------|-------|
| 호박(南瓜)   | wægua      | 우어:구아 |
| 기와(瓦)    | warä       | 우알아   |
| 고함치다(喊叫) | wakkɪraran | 우아낄알안 |
- ⑭ /j/ [이]<sup>20)</sup>

19) 반자음 w는 음절성을 부여하여 [우]로 서사한다. wu와 wɔ도 [우]로 적음으로써 서사의 편의성과 간략화를 도모한다(예: ‘불 불다’〈吹, 吹火〉 uwurən **우우울언** → **우울언**; ‘비비다’〈擦〉 aworan **아우울안** → **우울안**).

20) 반자음 j도 음절성을 부여하여 [이]로 서사한다. ji는 [이]로 서사하되, ja [이아], ju [이우], jo [이오]로 서사함으로써 모음 체계가 복잡화되는 것을 방지한다.

병어리(啞吧)	jaaba	<b>이아:바</b>
마르다(瘦, 人肉)	jandan	<b>이안단</b>
구(九)	jəjin	<b>이어인</b>
가난하다(窮)	jadar	<b>이아달</b>

## 2) 장자음의 서사 및 예시

언어 조사 보고에는 bb, pp, mm, dd, tt, nn, ll, rr, ɕɕ, ʃʃ, jj, gg, xx 이상 13종이 열거되어 있다. <어휘 목록 1,079>를 컴퓨터로 검색해본 결과 rr의 예는 없었고, 다른 것이 있었다.<sup>21)</sup> 본 장 1절 2)에서 검토한 서사법에 따라 서사한 예시를 열거 보자면 다음과 같다.

[bb]	베개(枕頭)	dəbbu	<b>더부</b>
	새끼면양(綿羊羔)	xobbo	<b>호보</b>
[pp] <sup>22)</sup>	젓가락(筷子)	ʃappə	<b>시부</b>
[mm]	입(嘴)	amma	<b>아마</b>
	바늘(針)	immə	<b>이머</b>
[dd]	차갑다(冷)	inigiddi	<b>이니기디</b>
	찢다(撕)	əddərən	<b>어덜언</b>
[tt]	낮다(低)	nəttə	<b>너떠</b>
	거세하다(驕)	attaran	<b>아딸안</b>
[nn]	칠하다, 니스(漆)	tənnuqu	<b>떠누구</b>
	씹다(嚼)	nannəran	<b>난늘안</b>
[ll]	호물호물하다(爛)	lallıran	<b>랄릴안</b>
	그들(他們)	tallər	<b>탈를</b>
[ɕɕ] <sup>23)</sup>	매트(墊子)	dəɕɕə	<b>더저</b>
	지나가다(經過)	nudɕɕirən	<b>누질언</b>
[ʃʃ]	고름(膿)	naaʃʃı	<b>나:시</b>

21) rr 장자음이 실제로 쓰인 예를 1079개 어휘 목록에서는 찾을 수 없다. 이에 열거되지 아니한 ʃʃ의 예는 모두 2개가 검색되었다. ① 오(五) tɕʃʃa **동아**, ② 넓다(寬) əʃʃəl **영일**. ʃ이 머리자음에 쓰인 일반 예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방법이 없다. 현지 언어 조사를 해보기 전까지 잠정적으로 ʃʃ을 ʃ으로 간주한다.

22) 예가 매우 드물어 <어휘 목록 1,079> 가운데 오직 이것 하나 밖에 없다.

23) 이 장모음이 쓰인 예도 매우 드물다. <어휘 목록 1,079> 가운데 이 두개가 전부다.

	가래(痰)	dʒalɪffa	<b>자리사</b>
[jj] <sup>24)</sup>	좋아하다(喜歡)	əjjəʃirən	<b>어이어:실언</b>
[gg]	곧다(直)	ʃiiggən	<b>시:건</b>
	갚다(還, 還錢)	buuggirən	<b>부:길언</b>
[xx]	깨끗하다(干淨)	arøxxøn	<b>알우훈</b>
	가볍다(輕)	ənixxun	<b>어니훈</b>

어윙키어의 머리자음에 대하여 각 음소별 어휘를 서사한 것을 종합하여 정리하자면 <표6>과 같다.

<표6> 어윙키어 머리자음(14개) 한글 서사 방안

	양순음	순치음	치조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파열음	b /ㅂ/		d /ㄷ/		g /ㄱ/
	p /ㅍ/		t /ㅌ/		k /ㅋ/
파찰음				ʧ /ㅈ/	
마찰음			ʃ /ㅅ/		x /ㅎ/
유 음			l /ㄹ/		
비 음	m /ㅁ/		n /ㄴ/		
반모음				j [이]	w [우]

### 3) 꼬리자음의 서사 및 예시

① /-g/ [ㄱ]

붕어(鯽魚) xəltəg

용감하다(勇敢) baatorɔɪg

샘(泉) bəlag

겨울(冬) tug

**혈떡**

**바:똥울의**

**부락**

**뚝**

② /-ʃ/ [ㅅ] (아래의 4개가 전부임)

감(柿子) ʃɪʃ

씨면양(種綿羊) xɔʃ

**싯**

**훗**

24) jj의 예도 매우 드물다. 이것 하나 밖에 없다.

셔츠(襯衣)	xantaaf	<b>한땀:</b>
상의(上衣)	xantaaf	<b>한땀:</b>
③ /-x/ [ㅎ] (아래의 2개가 전부임)		
옷깃(領子)	dʒax	<b>장</b>
언덕(岸)	næx	<b>너영</b>
④ /-r/ [ㄹ]		
옷깃(大襟)	əwur	<b>어울</b>
씨(種子)	ur	<b>울</b>
싹(芽, 种子芽)	ur	<b>울</b>
털없는소(秃牛)	məxər	<b>모홀</b>
⑤ /-m/ [ㅁ] (아래의 3개가 전부임)		
정책(政策)	turim bəɔɔlgo	<b>똥임 보들고</b>
장모(岳母)	xadam əne	<b>하담 어니</b>
장인(岳父)	xadam aba	<b>하담 아바</b>
⑥ /-n/ [ㄴ]		
보내다(送)	iraaran	<b>이랄:안</b>
보다(看)	ifirən	<b>이실언</b>
보수하다(補)	faŋanɪran	<b>상안일안</b>
보자기(包袱)	bəɔpən	<b>보:뽀</b>
⑦ /-ŋ/ [ㅇ]		
공기, 사발(碗)	taŋgər	<b>땅굴</b>
곳간, 창고(倉)	faŋxɔ	<b>상후</b>
거느리다(領導)	aŋɪxamɪ	<b>앙:이하미</b>
가슴(胸脯)	xəŋgər	<b>형걸</b>
⑧ 기타 :		
(1) 꼬리자음 /l/의 서사도 잠정적으로 /r/과 동일하게 [ㄹ]로 서사한다. <sup>25)</sup>		
보고(報告)	iltəxəl	<b>일떠헐</b>
비료(肥料)	əxxəmal	<b>우후말</b>

25) -r과 동일하게 서사하더라도 동음어에 따른 혼란이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 절 어휘에서는 준동음어가 하나도 없고, 다음절 어휘에서 오직 한 쌍의 준동음어(‘복숭아’ 桃子 tɔɔr, ‘토끼’ 兔子 tɔɔl)가 발견되었을 뿐이다. <어휘 목록 1,079>에는 -r에 비하여 -l은 매우 적은 편이다. 遊休 자모인 [ɔ]을 활용하여 서사하고 [-l]로 읽도록 주지시키는 방안도 있을 수 있겠으나, 동일하게 서사하는 잠정안을 채택하기로 한다.



② /u/ [ㄷ/우]		
밖(外)	tuldə	<b>똥디</b>
동지(同志)	nuxur	<b>누홀</b>
묘(畝)	muu	<b>무:</b>
머리카락(頭髮)	nuuttə	<b>누:띠</b>
*참고 [ɔ]		
밭(旱地)	bəgä	<b>부가</b>
화살(箭)	nör	<b>놀</b>
들보(梁)	nırɔɔ	<b>닐우:</b>
가렵다(痒)	ɔtɔnan	<b>우뚜:난</b>
③ /ɛ/ [ㅈ/애](아래 하나 밖에 없음)		
줍다(拾)	tɛwiran	<b>때우일안</b>
④ /ə/ [ㄱ/어]		
가늘다(細)	nənəxxun	<b>너너훈</b>
가다(去)	nənərən	<b>너널언</b>
고양이(猫)	xəxə	<b>허:허</b>
가지(茄子)	dʒəɟ	<b>젓:</b>
⑤ /ɔ/ [ㄴ/오]		
걸다(挂)	lɔxɔɔn	<b>로홀은</b>
가을(秋)	bɔl	<b>볼</b>
구리(銅)	gɔɔl	<b>골:</b>
개울(河)	dɔɔ	<b>도:</b>
*참고 [o]		
돈, 화폐(錢)	mogon	<b>모곤</b>
다리, 교량(橋)	xoggo	<b>호고</b>
끓이다(煮)	oloorən	<b>오롤:언</b>
동(東)	dʒoɔŋgidə	<b>종:기더</b>
⑥ /a/ [ㅏ/아]		
안개(霧)	manan	<b>마난</b>
눈(雪)	ɪmanda	<b>이만다</b>
석탄(煤)	jaagä	<b>이야:가</b>
강철(鋼)	gaan	<b>간:</b>

이상 단모음 6종에 대한 한글 서사를 종합하자면 <표8>과 같다.

〈표8〉 단모음(6개)의 한글 서사 방안

	전설모음		후설모음	
	평순	원순	평순	원순
고 모 음	i [ㅣ]			u [ㅓ]
중고모음				
중저모음	ɛ [ㅐ]		ə [ㅓ]	ɔ [ㅗ]
저 모 음			a [ㅏ]	

※ 단모음이 홀로 음절을 이룰 경우에는 각각 [이], [우], [애], [어], [오], [아]로 서사한다.

5) 이중모음의 서사 및 예시

언어 조사 보고에는 이중모음 io와 ua 2개가 열거 되어 있다. 〈어휘 목록 1,079〉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중모음 io를 가진 단어는 하나도 없다. ua는 모두 5개가 있었는데 이것은 /ㅏ/로 서사하기로 한다.

호박(南瓜)	wægua	<b>우어:과</b>
전화(電話)	dɛɛnxua	<b>덴:화</b>
오이(黃瓜)	xuaŋgua	<b>황과</b>
오이(瓜)	gua	<b>과</b>
단원(團員)	tuanjan	<b>뽀이안</b>

6) 장모음의 서사 및 예시

- ① ii(ㅍ) [이:]
 

갈다(磨)	iin	<b>인:</b>
열다(開)	naŋiiran	<b>낭일:안</b>
- ② ɛɛ [애:] (하나만 있음)
 

차(茶)	ʃɛɛ	<b>새:</b>
------	-----	-----------

※ ee와 ɛɛ 가 ee와 단음절 어휘에서 준동음어가 없는 것을 근거로 ɛɛ의 변이음으로 보고 ɛɛ와 동일하게 서사한다.

ee [애:]

이모(姨母) nagafɔ̄ ənee	<b>나가수 아내:</b>
비둘기(鴿子) tuutəgee	<b>뚜:띠개:</b>
모범(模範) dʒifeefi	<b>지새:시</b>
굴(窩) uuwee	<b>우:우애:</b>

EE [애:]

돼지(豬) ɔlgEEn	<b>올갠:</b>
달(月亮) bEEgǎ	<b>배가</b>
귀(耳朵) fEEn	<b>샌:</b>
가마귀(烏鴉) ɔlEE	<b>우래:</b>

③ əə [어:]

찌다(蒸) dʒəəmmərən	<b>점:말언</b>
집게, 펜치(鉗子) əjəəggʉ	<b>어이어:구</b>

④ uu(oo) [우:]

고모(姑母) guugu	<b>구:구</b>
구하다(救) ajtɔ̄bɔ̄ɔran	<b>아이뚜불:안</b>

⑤ aa [아:]

간(肝) aaxɪn	<b>아:힌</b>
강철(鋼) gaan	<b>간:</b>

⑥ ɔɔ(oo) [오:]

끓이다(煮) oloorən	<b>오롤:연</b>
개울(河) dɔɔ	<b>도:</b>

### 3. 단음절 어휘의 서사 및 종합 검토

문자가 없는 민족이 사용하는 언어에 대한 서사 방안을 강구함에 있어서는 어휘 채집이 매우 중요하다. 수집된 어휘 중에서도 단음절 어휘가 복음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음절 구조 유형이나 준동음어 등을 찾아낼 때 복음절 보다는 단음절 어휘가 더욱 큰 의의를 가지기 때문이다. 1986년도 언어 조사 결과로 채집된 <어휘 목록 1,079> 가운데 단음절 어휘는 55개(약 5%)이었다. 이 가운데 완전 동음어는 모두 4쌍이다.

1) 무: 묘(畝)	muu	2) 울	싹(芽, 種子芽)	ur
무: 물(水)	muu	울	씨(種子)	ur
3) 시: 너(你)	ʃii	4) 잔:	생강(姜)	dʒaan
시: 척(尺)	ʃii	잔:	십(十)	dʒaan
		잔:	코끼리(象)	dʒaan

그리고 준동음어는 오로지 한 쌍 뿐이었다.<sup>26)</sup> 단모음 i와 ɪ, u와 ʊ, o와 ɔ, 이상 3종 모음들 간에 준동음어는 하나도 없었다. 단모음의 서사에서 그 3종 모음을 각각 하나로 간략 전사하여 [i], [ɪ], [ɪ]로 서사한 것에 대한 강력한 증거를 이로써 확보한 셈이다. 이러한 서사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同音異義語의 혼동 현상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처럼 단음절 어휘에 대한 준동음어 검색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55개 단음절 어휘를 모두 아래에 열거해 봄으로써 향후 더욱 심도 있는 연구의 기틀로 삼고자 한다.

〈표9〉 한글로 서사한 어원키어 단음절 어휘 목록

간:	강철(鋼)	gaan	격	암말(驃馬)	gəg
골:	구리(銅)	gɔl	과	오이(瓜)	gua
군:	병(瓶子)	guun	긴	근(斤)	gin
난:	또(也)	naan	눌	화살(箭)	nɔr
달:	팔 벌리다(麀)	daar	도:	개울(河)	dɔɔ
돌	소고삐(牛纜繩)	dor	떡	영(零, 一百零五)	təg
똑	불(火)	tɔg	뜰	문지방(門坎)	tor
뜰:	복숭아(桃子)	tɔr	뜰:	토끼(兔子)	tɔl
똑	겨울(冬)	tug	라:	양초(蠟燭)	laa
럿:	노새(驃子)	lɔs	모:	나무(樹)	mɔɔ
무:	묘(畝)	muu	무:	물(水)	muu
물	매(老鷹)	mur	밀:	어깨(肩膀)	miir
벌	활(弓)	bər	볼	가을(秋)	bɔl
부:	우리(我們)	buu	북	사슴(鹿)	bɔg
비:	나(我)	bii	번	화장용 분(粉)	pən

26) 뜰: '복숭아(桃子) tɔr, 뜰: '토끼(兔子) tɔl

<b>보:</b> 대포(炮)	pɔɔ	<b>삐:</b> 붓(毛筆)	pii
<b>새</b> 차(茶)	ʃɛɛ	<b>쌌:</b> 귀(耳朵)	ʃɛɛn
<b>설</b> 쇠(鐵)	ʃəl	<b>슬</b> 벼룩(跳蚤)	ʃɔr
<b>수:</b> 너희(你們)	ʃuu	<b>순</b> 촌(寸)	ʃun
<b>시:</b> 너(你)	ʃii	<b>시:</b> 척(尺)	ʃii
<b>шит</b> 감(柿子)	ʃif	<b>안:</b> 오른쪽(右邊)	aan
<b>연:</b> 약(藥)	əən	<b>을</b> 싹(芽, 種子芽)	ur
<b>울</b> 씨(種子)	ur	<b>익:</b> 뿔(角)	iiɡ
<b>인:</b> 갈다(磨)	iin	<b>잔:</b> 생강(姜)	ɕaan
<b>잔:</b> 십(十)	ɕaan	<b>잔:</b> 코끼리(象)	ɕaan
<b>장</b> 옷깃(領子)	ɕax	<b>주:</b> 집, 건물(房子) <sup>2</sup>	ɕuu
<b>죽</b> 집, 건물(房子) <sup>1</sup>	ɕug	<b>줄:</b> 이(二)	ɕuur
<b>훓</b> 씨면양(種綿羊)	xɔʃ		

## V. 어원키어 한글 서사 예시(문장27)

1. nəlxi ɔʃaa, ɪlga dəggərəɕʒirən. (24쪽)

**널히 오:사: 일가 더거리지런**

‘봄’ ‘되다’ ‘꽃’ ‘피다’

봄이 되어 꽃이 피었다.

2. əri əxur mörin-dəxi ʃampalʃila. (40쪽)

**어리 어흘 무란-두히 삼팔시라**

‘이’ ‘소’ ‘말’ ‘빠르다’

이 소는 말보다 더 빠르다.

3. awɔja gələədi? (52쪽)

**아우이아 거러:디?**

‘누구’ ‘찾다’

(당신은) 누구를 찾습니까?

27) 각 문장의 쪽수는 胡增益·朝克(1986)의 페이지 수를 말한다. 앞으로 어원키족의 민요, 동요, 신화, 전설 등이 수집된다면 한글 서사법을 더욱 폭넓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4. *ibbə gafaafi?* (52쪽)  
**이베 기사:시**  
 ‘어느’ ‘사다’  
 (당신은) 어느 것을 샀습니까?
5. *fii tabba ədʒi imira gunən.* (145쪽)  
**시: 따바 어지 이미라 구년.**  
 ‘당신’ ‘그사람’ ‘부정’ ‘피우다’ ‘말하다’  
 당신이 그에게 담배 피우지 말라고 말하세요.
6. *əri firə tafxəni.* (135쪽)  
**어리 실어 뜻후니**  
 ‘이것’ ‘탁자’ ‘학교’  
 이 탁자는 학교 것이다.
7. *tiinugu bii ənuufuu tɔɔffi tarī əfəə əməərə.* (138쪽)  
**띠:누구 비: 어누:수: 도시 딸이 어서 어멀어**  
 ‘어제’ ‘나’ ‘병나다’ ‘그래서’ ‘그’ ‘아니’ ‘오다’  
 어제 나는 병이 나서 그가 오지 않았다.
8. *ənee! bii tarī tangör feədöxi əmun ɔɔxɔgətɔ!* (142쪽)  
**어내: 비: 딸이 땅굴 새두히 어문 오호고도!**  
 ‘어머니’ ‘나’ ‘저’ ‘그릇’ ‘차’ ‘하나’ ‘마시다’  
 어머니! 나에게 저 그릇에 담긴 차를 한 모금 마시게 해주세요.
9. *buu dzuuri əri inigi əfəmun ilirə.* (143쪽)  
**부: 줄:이 열이 이니기 어서문 일일어**  
 ‘우리들’ ‘둘’ ‘오늘’ ‘아니다’ ‘가다’  
 오늘 우리 두 사람은 가지 않을 꺼야!
10. *ədu dangaja imimi əfin ɔɔda!* (137쪽)  
**어두 당가이아 이미미 어신 오다!**  
 ‘이곳’ ‘담배’ ‘피우다’ ‘아니’ ‘되다’  
 이곳에서는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

## VI. 맺음말

고유의 문자가 없는 어원키족의 언어에 대한 한글 서사 초안은 2008년 필자에 의하여 작성된 바 있다. 이것은 언어조사 결과에 대한 음소론적 簡化 절차를 거치

지 않은 것이었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초고에 불과한 것이었다. 이 논문은 언어 조사 결과(胡增益·朝克 1986)에 의하여 채집된 1,079개 어휘를 심도 있게 재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음소 목록을 간화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고 쉽게 쓸 수 있는 한글 서사 방안을 다음과 같이 강구하게 되었다.

1. 머리 자음 (14)

/ㅁ/[b] /ㄷ/[d] /ㄱ/[g] /ㅍ/[p] /ㅌ/[t] /ㅋ/[k] /ㅈ/[dʒ] /ㅊ/[ʃ]  
/ㅎ/[x] /ㄹ/[l] /ㅁ/[m] /ㄴ/[n] j[이] w[우]

2. 꼬리 자음 (7)

/ㄱ/[-g] /ㅊ/[-f] /ㅎ/[-x] /ㄹ/[r / l] /ㅁ/[m] /ㄴ/[n] /ㅇ/[ŋ]

3. 단모음 (6) /ㅣ/[i] /ㅜ/[u] /ㅓ/[ɛ] /ㅑ/[ə] /ㅗ/[ɔ] /ㅏ/[a]

4. 이중모음(1) /ㅑ/[ua]

어원키어의 한글 서사 방안에 대한 보충 준칙은 다음과 같다. ① 단모음과 장모음이 단독으로 음절을 이룰 때에는 ‘ㅇ’을 부가하여 서사한다.(예, ㅣ→이). ② 장모음은 보조기호 ‘:’를 해당 음절 뒤에 부가한다. ③ 장자음은 뒤 음절의 머리자음만 서사하고 발음 할 때 ‘지속’(hold) 부분을 좀 더 길게 발음하도록 지도한다.

2008년도에 입안된 초안에 비하여 더욱 체계적이고 간단한 서사 방안이 강구되었다. 그러나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꼬리자음 ㄱ과 ㄴ을 모두 /-ㄹ/로 서사한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단음절 어휘의 준동음어 한 쌍이 있기는 하지만, 실용적인 면에서는 동일하게 서사하더라도 동음어에 의한 혼란이 야기될 여지가 크지 않을 것이다. 이 방안이 앞으로 어원키어 한글 정서법으로 발전되자면 ‘無始無終, 有始有終’의 끈기로 부단한 연구와 노력이 감행되어야 할 것이다.

## 【參考文獻】

- 歐陽覺亞, 1994 〈中國少數民族語言使用情況綜述〉, 《中國少數民族語言使用情況》(中國藏學出版社), 1-15.
- 祁惠君, 200 《傳統與現代: 鄂溫克族牧民的生活》, 中央民族大學出版社.
- 김주원, 2008 《사라져가는 알타이언어를 찾아서》, 태학사.
- 노만-전광진, 1996 《중국언어학총론》, 동문선출판사.
- 羅季光, 1954 〈關於幫助少數民族創造文字的一些問題〉, 《中國語文》3, 21-26.
- 羅常培, 1954a 《國內少數民族語言文字》, 中華書局.
- 羅常培, 1954b 〈爲幫助兄弟民族創立文字而努力〉, 《中國語文》6, 11-12.
- 羅常培, 1958 〈漢語拼音方案與民族團結的關係〉, 《民族團結》2, 5.
- 羅常培·傅懋勳, 1954 〈國內少數民族語言文字的概況〉, 《中國語文》3, 21-26.
- 戴慶厦 등, 1999 《中國少數民族語言文字應用研究》, 雲南民族出版社.
- 藤井明, 1977 〈中國의文字改革—少數民族의文字改革工作概況〉, 《大東文化大學紀要》15, 51-56.
- 傅懋勳, 1979 〈我國少數民族創造和改革文字的問題〉, 《民族研究》1, 9-17.
- 傅懋勳·羅季光, 1978 〈我國少數民族語文研究工作的回顧與展望〉, 《中國語文》1.
- 傅懋勳·王均, 1978 〈重視少數民族語言文字的使用和發展〉, 《民族語文》1, 10.
- 徐世旋, 1994 〈論文字系統的科學性:對文字創製改革的理論思考〉, 《民族語文》4.
- 岩佐昌暲, 1983 《中國의少數民族と言語》, 光生館(동경).
- 王均, 1979 〈民族語文研究工作中的幾個迫切問題〉, 《民族語文》3, 161-166.
- 汪立珍, 2006 《鄂溫克族神話研究》, 中央民族大學出版社.
- 李有義, 1980 〈我國民族學的回顧與展望〉, 《民族研究》1, 48-59.
- 李維漢, 1980 《關於民族理論和民族政策的若干問題》, 民族出版社.
- 이현복, 1981 《국제 음성 문자와 한글 음성 문자》, 과학사(서울).
- 이호영, 1996 《국어음성학》, 태학사(서울).
- 庄司博史, 1987 〈文字創製·改革にみた中國小數民族政策〉, 《國立民族學博物館研究報告》12(4), 1181-1214.
- 전광진, 2001 〈중국 내 소수민족(55) 언어의 지리 분포와 유형학적 특질〉, 《중국문학연구》22, 343-367.
- \_\_\_\_\_, 2002 〈중국 내 소수민족(55)의 서사체계 및 새로운 문자 창제〉, 《중국언어연구》15, 195-228.
- \_\_\_\_\_, 2003 〈로바어와 그 한글 서사법〉, 《중국언어연구》제17집, pp.275-317.
- \_\_\_\_\_, 2008 〈중국경내 소수민족 언어에 대한 한글 서사 방안 탐구〉, 《중국문학연구》

- 37, 423-443.
- \_\_\_\_\_, 2009 <타이완 원주민 언어에 대한 한글 서사법 개발 연구>, 《중어중문학》 45, 351-388.
- \_\_\_\_\_, 2010 <타이완 원주민 부눈족 언어의 한글 서사 체계>, 《중국문학연구》 41, 257-280.
- \_\_\_\_\_, 2011 <타이완 남도어족 루카이어 한글 서사법 창제>, 《중국문학연구》 44, 359-392.
- 周耀文, 1952 <加强研究少数民族语文, 为提高各族文化而努力>, 《中國語文》 6.
- 周耀文, 1981 <民族語文工作必須堅持四項基本原則>, 《民族語文》 4, 10-14.
- 中國社會科學院民族研究所, 1994 《中國少数民族語言使用情況》, 中國藏學出版社.
- 村松一彌, 1963 <現代中國の少数民族—その分類と譯名について>, 《中國語學》 132 號, 1-13.
- 編輯部, 1991 《中國少数民族文字》, 中國藏學出版社(北京).
- 胡增益, 1986 《鄂倫春語簡志》, 民族出版社.
- 胡增益·朝克, 1986 《鄂溫克語簡志》, 民族出版社.
- Chang, Kun(張琨), 1967 "China : national languages", in Thomas A. Seboek(ed.), *Current Trends in Linguistics 2* (Mouton).
- Coulmas, Florian 1984 "Linguistic Minorities and Literacy". in F. Coulmas (ed.), *Linguistic Minorities and Literacy*, New York. pp. 5-20.
- Edmondson, Jerold A. 1984 "China's minorities". in F. Coulmas (ed.), *Linguistic Minorities and Literacy*, Mouton, pp. 63-76.
- Fu, Maoji 1985 "Languages Policies Towards National Minorities in China". *Anthropological Linguistics* 27(2), 214-221.
- Lehmann W. P., ed. 1975 *Language & linguistics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ustin: Univ. of Texas Press.
- Schwarz H.G., 1962 "Language policies toward ethnic minorities". *The China Quarterly* 16:170-18.

## 【中文提要】

笔者曾在2008年发表论文,提出了对于没有文字的鄂温克语的韩文书写草案。但由于当时未能对鄂温克语的调查资料进行音位论层次上的简化,因此草案中存在一些问题。本文对通过调查(胡增益·朝克 1986)后所采集的1079个词汇,进行了具有一定深度的再分析,并在此基础上简化了音位目录,建立了便于学习的韩文书写方案,草案如下:

声母(14) : /ㅂ/[b] /ㄷ/[d] /ㄱ/[g] /ㅃ/[p] /ㅌ/[t] /ㅋ/[k]  
/ㅈ/[dʒ] /ㅊ/[tʃ] /ㅆ/[x] /ㄹ/[l] /ㅁ/[m] /ㄴ/[n]  
/ㅇ/[j] /ㅇ/[w]

辅音韵尾(7) : /ㄱ/[-g] /ㅈ/[-tʃ] /ㅆ/[-x] /ㄹ/[-r/-l]  
/ㅁ/[-m] /ㄴ/[-n] /ㅇ/[-ŋ]

单元音(6) : /ㅣ/[i] /ㅓ/[u] /ㅕ/[ɛ] /ㅑ/[ə] /ㅗ/[ɔ] /ㅜ/[a]

复元音(1) : /ㅜㅓ/[ua]

同2008年的研究相比,本论文所提出的书写方案体系更加完善、运用更加简捷,但也仍存在一些问题。其中把辅音韵尾-r和-l一律写做/-ㄹ/是最大的问题。虽然单音节词中存在准同音词,从理论上讲应该对-r和-l进行区分,但从实用的角度来看,把两者合二为一也无妨,因此初步地把-r和-l都写做/-ㄹ/。要想把此方案进一步发展为鄂温克语的正词法,还有待于今后不断的努力和研究。

## 【主題語】

중국, 소수민족, 어원키어, 한글, 서사체계